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는 자기 선택적 독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독자가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해 합리적으로 책을 선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인이 언제나 합리적이지는 않음을 인정한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가 제시한 **①밴드왜건 효과**를 이용해 설명하려고 한다.

밴드왜건 효과는 개인이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을 말한다. 사람들이 특정 책을 선택할 때는 다수의 선택에 동조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려 한다. 이때 다수의 선택은 사회적 증거로 작용하여 다수가 선택한 책이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게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 시장을 살펴보면, 많이 팔렸다는 책을 뜻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이 도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시장에서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 책을 집중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작가나 덜 알려진 책들이 독자의 주목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밴드왜건 효과만으로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의 모순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매되는 도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도서 선정 과정에서 밴드왜건 효과와 **②스놉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스놉 효과는 개인이 다수가 소비하는 상품을 회피하고 소수가 소비하는 상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구분짓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소수가 소비한다고 항상 스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책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고급 이미지를 사회적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독서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독서를 단순한 자기 과시 행위로 격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동시에 도서 시장에서 책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동경제학에서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개인의 비합리성이 반영된다고 본다.
- ② 밴드왜건 효과에서 베스트셀러는 특정 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회적 증거가 된다.
- ③ 도서 선택에 사회적 증거가 작용한다면 다수가 읽는 책들만 주목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 ④ 스놉 효과가 발생하려면 해당 책이 다수가 읽는 책이 아니어야 한다.
- ⑤ 개인이 스스로를 과시하려는 욕망은 도서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다.

2. ㉠과 ㉡를 바탕으로 다음의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천문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인기 도서 품목에 있다는 이유로 책 『2019년 현재의 우주론』을 구매했다.
 ㉡. B의 장편 소설 『이기론』은 인기가 없었지만, 대기업 회장 C의 구매 소식이 알려진 후 소수의 수요층이 생겼다.
 ㉢. 학생 D는 소수의 국어 상위권들만 『허수론』을 읽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책을 사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 『경마식 보도』는 베스트셀러였으나, 저자 E가 체포되어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발생하자 판매량이 급감했다.

- ① ㉠은 ㉢과 ㉣ 모두를 예시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② ㉠은 ㉢을 예시로 가질 수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 ③ ㉡은 ㉣을 예시로 가질 수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 ④ ㉡에 의하면, ㉡에서 B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 책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 ⑤ ㉡에 의하면, ㉡에서 B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 독자 중 일부는 이탈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츠와 웨드윅은 독서에 있어 도서 선정 전략으로 9가지 요소를 고려한 BOOKMATCH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요소들은 ㉠독자에 관련된 것과 ㉡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내용에 대한 높은 흥미, 장르에 대한 관심, 책이 독자에게 특정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에 관한 연관, 독자가 주제를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적합성, 선행 지식 등이 있다. 후자에는 책의 길이, 언어의 친숙성, 글의 구조, 단어의 수준 등이 해당한다.

- ① 자신이 쓸 논문과 유사한 주제의 책들 중 베스트셀러를 선택한 사례는 ㉠에 밴드왜건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 ② 단어가 어렵지만 소수의 부유층만 읽는 책을 과시 용도로 고른 것은 스놉 효과로 ㉡을 도서 선정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 ③ 소수의 현명한 사람만 공포 책을 읽는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껴 공포 책을 선택한 것은 ㉠에 스놉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 ④ 책 A가 베스트셀러가 된 원인이 책의 짧은 길이와 쉬운 단어 수준 때문이라면, ㉡은 사회적 증거로써 책 A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⑤ 북매치 전략의 요소를 모두 만족한 책이 대다수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 도서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밴드왜건 효과로 인해 북매치 전략을 도서 선정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1] 선지 해설

- ① 1문단에서 독자가 스스로의 목적에 반하여 비합리적으로 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했고,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모순을 개인이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음을 인정하여 설명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2문단에서 밴드왜건 효과에서는 다수의 선택이 사회적 증거로 작용해 특정 책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을 뜻하므로 다수의 선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③ 2문단에 의하면 밴드왜건 효과에서는 다수의 선택이 사회적 증거로 작용해 베스트셀러로 소비를 집중한다고 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책이 소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고급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이 사회적 증거로 작용해 책을 꾸준히 판매시킨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사회적 증거가 작용한다는 것만으로 밴드왜건 효과가 작용하는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거짓이다.
- ④ 2문단에서 스놉 효과가 발생하려면 해당 책이 소수의 선택만을 받으면서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⑤ 2문단에서 스놉 효과가 개인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 의해 발생한다고 진술되었고, 동시에 이는 도서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술되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2] 선지 해설

- ① ㄱ은 인기 도서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기에 밴드왜건 효과, 즉 ㉠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ㄴ은 소수의 수요층만이 생겼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대기업 회장 C가 해당 책을 읽었다는 소식이 고급 이미지로 작용한다면 이는 스놉 효과, 즉 ㉡의 예시가 될 수 있다.
- ② ㄱ은 인기 도서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기에 ㉠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ㄴ 또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사례이기에 ㉠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ㄷ은 소수의 국어 상위권이라는 소수의 수요층이 있고, 책 또한 수요층이 국어 상위권이라는 자신을 어필할 고급 이미지가 있다는 점에서 스놉 효과, 즉 ㉡로 설명될 수 있다. ㄴ은 소수의 수요층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대기업 회장 C가 해당 책을 읽었다는 소식이 고급 이미지로 작용한다면 ㉡의 예시가 될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스놉 효과는 소수의 선택이 있어야 발동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다수가 선택함이 확인되면 해당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스놉 효과에 의해 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책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놉 효과로 책을 소비했던 사람이 밴드왜건 효과로 유입된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⑤ 2문단에서 스놉 효과는 소수의 선택이 있어야 발동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다수가 선택함이 확인되면 해당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놉 효과가 작동하였기에 책을 고른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만약 이탈한다고 단정하였으면, 스놉 효과가 발동하지 않은 독자들 중 밴드왜건 효과로 인해 잔류한 독자의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과추론이다.

[3] 선지 해설

- ① 자신이 쓸 논문과 유사한 주제는 책이 독자에게 특정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에 관한 연관, 즉 ㉠에 해당한다. 베스트셀러를 선정한 사례는 밴드왜건 효과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② 소수의 부유층만 읽는 책을 과시 용도로 고른 것은 스놉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독자가 책을 선정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준인 단어의 수준은 ㉡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공포 책에 대한 관심은 장르에 대한 관심, 즉 ㉠에 해당한다. 소수의 현명한 사람만 공포 책을 읽는다는 생각에 공포 책을 고른 것은 소수가 읽으면서 고급 이미지를 가진 책을 고른다는 스놉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책의 짧은 길이와 쉬운 단어 수준 때문에 ㉡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책 A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증거로써 작용했다는 것은 지문 내에서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2문단에서 사회적 증거는 밴드왜건 효과에서 개인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대중의 선택’으로, 3문단에서는 스놉 효과에서 개인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소수의 선택’으로 진술된 것을 제외하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미스매치 문항이다.
- ⑤ 대다수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 특정 책을 도서 선정에서 배제한 것은 다수의 선택을 따라간 것에 해당하므로, 밴드왜건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북매치 전략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해당 책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북매치 전략을 도서 선정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